



창조

I 이달의 소식

1. 모임안내 1쪽

II 내용

- 1. 지적설계 (5) 제4장 - 발표 이종헌, 정리 이종헌 2쪽
- 2. The BIBLE COMES ALIVE (20) by Clifford Wilson - 이종헌 역 9쪽
- 3. IMPACT (8) 그랜드캐년 석회암은... - 이종헌 감수 13쪽
- 4. 창조단상 (21) 과일은 언제 먹을까? - 박종환 16쪽

인사말

무더위에 잠을 설치는 때입니다. 잠을 못 잠으로 인해서 건강을 잃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살아가다가 어쩌다 무언가를 잃어버릴 때가 있는데, 잃어버려도 좋은 것 중에서 가장 값싼 것이 돈이라는 생각입니다. 무언가 한 가지를 잃어버려야 한다면 차라리 돈을 택하겠습니다. 건강보다도, 신앙보다도...

저에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돈을 잃고 신앙을 회복한 것입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데 나의 영이 잠시 잠이 들었다가 깨어보니 돈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신앙을 회복하고 나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 졌습니다. 지금도 잠시 건강을 잃고 식은땀과 투쟁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쉬라고 주신 이 기회에 말씀과 함께 하니 또한 좋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잠을 설치 때 더욱 말씀을 묵상합니다.



- 창조과학회 대구지부장 이종헌 올림

1. 정기모임 안내

창조과학회 대구지부에서는 **매월 정기 스터디모임(1, 3째주 목요일)**이 있습니다. 이 모임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과학 자료를 발굴하고,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보다 전문성 있는 부분에 대해 알아보며, 상호교제를 통해 사랑과 풍성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8월 모임은 없으며 9월, 다음 모임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시: 2004년 9월 2일 목요일 오후 7시

장소: 창조과학회 대구지부 사무실 (동일교회 세계복음센터 103호)

내용: "지적 설계(Intelligent Design)" 8장

발표: 서종학

약도: 문의전화 (053)743-6058



제4장 자연주의와 그 치료 (Naturalism and Its Cure)

4.1 자연과 창조(Nature and Creation)

● 자연의 정의(What is nature?)

• 자연의 다양한 정의 : 자연은 물질적 또는 물리적 세계이다. 자연은 생물리학적 우주이다. 자연은 자연적인 질서이다. 자연은 공간과 시간과 에너지의 영역이다. 자연은 자연법칙에 의해 서술되는 실재의 한 부분이다. 자연은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대상, 즉 과학의 영역이다.

• 그러나 그 어떤 정의에서도 자연이 창조라는 개념과 연결되는 것을 찾을 수 없다. 창조는 항상 신적인 활동인 반면, 자연은 하나님과는 독립된 일체 완비된 존재이다. → 하나님이 없다면 세상은 자연이 된다.

• 세상을 자연으로 생각하는 데는 매우 혼란스러운 점이 있지만, 현대 과학의 성공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다. 신학자는 창조를 연구하는 반면 과학자는 자연을 연구한다. 『과학자는 하나님이 세상에 두신 질서를 연구하기 원하지않 하나님과 자연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과학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무시하고, 세상을 하나님과 독립적으로 세상 자체로만 본다. 우리 시대에는 이것이 완전히 행여적으로 보인다.』

● 이 세상의 질서는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인가?

• 세상을 자연으로 생각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즉, 자연이 과학자들의 탐구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자연은 과학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질서를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만약 자연에 형식이나 질서가 전혀 없다면 과학은 불가능할 것이다. → 그러면, 왜 세상은 질서정연하며 이 **질서**는 어디서 온 것일까?

• 선택 가능성 : (1) 세상은 세상 밖의 어떤 근원에서 질서를 가져온다. = 창조된 세상을 다루는 것 (2) 세상은 내재적인 질서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 자연을 다루는 것

● 성경적 견해

• 성경은 사람을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활동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구분하고 있다. 즉, '영적인'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

• 세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은 우상숭배의 핵심이며,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한다. 세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 또는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을 자연으로 보는 것이 인류의 타락의 핵심이다.(Severing the world from God or alternatively viewing the world as nature, is the essence of humanity's fall).

4.2 우상숭배의 뿌리(The Root of Idolatry)

● 자연주의와 세상의 질서

•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활동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자연주의자'라고 부르고, 자연이 일체 완비되었다는 관점을 '자연주의'라고 하자.

-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의 관계에 대하여 중립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이 세상의 근원이고 세상을 유지시키는 분이신가, 아니면 세상은 저절로 그리고 스스로 존재하는가? 이것은 세상이 창조된 것인가, 아니면 세상은 단지 자연일 뿐인가 하는 큰 차이를 만든다.
- 자연주의는 죄의 개념을 해체시킴으로써 죄의 부담으로부터 인류를 해방시켜 줄 것을 약속한다.
- 세상을 자연으로 보는 관점은 일반적으로 과학적 행동으로 이해되지만, 우리는 그것이 심오한 종교적 행동임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 세상의 질서는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 (1) 창조(하나님이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셨다), (2) 자연(세상의 질서는 내재적인 것이다) → 그러나 과학은 세상의 질서가 내재적임을 증명할 수 없다.

• 자연주의와 우상숭배

- 과학적 자연주의는 명백히 힌두교의 종교적 자연주의만큼이나 종교적이다. 신적인 창조에 대한 신념과 마찬가지로 자연주의도 언제나 깊은 철학적, 종교적인 신념이다.
- 자연주의는 불가피하게 우상숭배에 이르게 된다. 고대에는 조각된 형상들이 가장 확실한 우상숭배의 표시였지만, 조각된 형상에서 중요한 것은 형상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의미하는 바이다. → 문제는, 우리의 모든 형상은 오직 피조계 안에 있는 다른 것들만 의미할 수 있고, 처음에 만물을 존재하게 하신 그분을 의미할 수 없다는 것이다.
- 우상숭배는 피조계를 창조자 위에 두어서 피조계를 자연으로 바꾸기 때문에, 항상 창조자를 거부한다.

• 성경과 우상숭배

- 창조의 하나님은 세상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시기 때문에 신실하시며 약속을 성취하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 결국 모든 만물이 그분의 지배를 받는다.
- 성경은 우상숭배를 묘사하는데 많은 단어와 표현을 사용하지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어리석음이다.
-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으나 타락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마다 우리는 자연주의를 본다. 우리는 슬프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창조자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할 때마다 자연주의를 보게 된다(We see it, alas, whenever we forget God and worship the creature more than the Creator).

4.3 서구 문화 속의 자연주의(Naturalism Within Western Culture)

• 자연주의의 주장

- 서구 문화에서 자연주의는 모든 진지한 연구의 기본적인 전제로 기능해 왔다. 성경을 포함한 모든 연구는 자연이 일체 완비되었다는 가정 아래서만 진행될 수 있다. → 이것은 우리에게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세상을 일체 완비된 상태로 창조하실 수 있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가정하고 그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도록 요구받는다.
- 자연주의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자연주의에 대한 대처 방법

- 자연주의는 하나의 이데올로기이다. 서구 문화에서 가장 해로운 자연주의의 한 형태는 과학적 자연주의이다. →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주의를 어떻게 물리칠 것인가?

- 과학적 자연주의 ⇒ 인간도 우주의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인가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가 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자연주의적 견지에서 이해되어야만 한다. 이것은 우리의 인간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인간성을, 의도적으로 인간을 목표로 삼지 않는 맹목적인 물질적 과정의 결과로 재해석하는 것이다.
- 과학적 자연주의가 하나님의 존재를 긍정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 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일체 완비된 세상에 대한 설명에 덧붙인 불필요한 추가조항으로 만들 때만 가능한 것이다.
- 과학적 자연주의는 자연의 자기충족성을 자연법칙 안에 둔다. → 그러나 유신론자들은 자연주의가 거짓임(자연은 자기충족적이지 않다)을 알고 있다. 하나님은 자연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순간순간 돌보신다.
- 그래도 하나님은 그분이 이 세상과 상호 작용하신다는 것에 대해 어떤 증거를 주셨는가 하는 질문이 남아 있다. → 하나님이 세상에 상호 작용하시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그것을 **경험적으로 탐지할 수 있는지**를 질문하면 논쟁이 생긴다.
- 신학과 철학은 하나님과 세상의 상호작용이 경험적으로 탐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 없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과학에 의존해야 한다. → 그런데 과학을 엄격하게 자연주의적 원인에 제한된다고 미리 못박는다면, 과학은 하나님과 세상의 상호 작용을 연구하는 데 부적합해질 것이다. 그러나 과학이 **지적인 원인**을 연구하도록 허용한다면, 하나님과 세상의 상호 작용은, 과학이 지적인 원인 작용의 특징을 명확히 드러내는 한 과학적 연구의 적합한 영역이 된다.
- **자연적인 원인과 지적인 원인의 대조** : 지적인 원인은 자연적인 원인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

4.4 치료 방법 : 지적 설계(The Cure: Intelligent Design)

- **지적 설계 논증** (지적 설계 논증의 기초 = 자연적인 원인 vs. 지적인 원인)
- 자연의 데이터로부터 자연을 초월하는 지성을 논증하는 설계논증을 펼치는 신학자들을 발견한다. 설계 논증은 오래된 것이다.
- 가장 유명한 설계 논증 = 윌리엄 페일리의 설계논증 : 유기체가 목적에 맞게 놀랍도록 적합하게 되어 있다는 것은 그 유기체들이 지성의 산물임을 보장한다.
- (역사) 설계논증은 직관적인 호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사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설계가 폭발적으로 부활하고 있다. 과학자들은 설계가 엄밀한 과학이론으로 공식화될 수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 지난 140년 동안 설계가 주류 과학에서 벗어난 이유는, 지성적인 원인에 의해 생겨난 물체와 비지성적인 원인에 의해 생겨난 물체를 구분할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 설계가 과학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어떤 것이 설계되었다고 잘못 생각했다가 후에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 그러나 이제는 정확히 구분할 수 있다.
- **새로운 과학적 연구 프로그램 = 지적 설계**
- 생물학에서 지적설계는 생물학적 기원과 발달에 관한 이론이다. 지적설계의 기본적인 주장은 복잡하고 정보로 가득한 생물의 구조를 설명하려면 지적인 원인들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 지적인 원인들은 경험적으로 탐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 세상은 관찰 가능하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인도되지 않은 자연적 원인들>과 <지적인 원인들>을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방법이 존재하며, 많은 과학자들이 그런 방법들을 개발하였다.

• (정보)이런 방법들이 지적인 원인 작용을 발견할 때마다 밝혀지는 숨겨진 실체는 정보이다. 정보는 과학적 탐구의 적합한 대상일 뿐 아니라 지적인 원인 작용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그러므로 지적설계는 정보를 탐지하고 측정하며, 그것의 기원과 흐름을 조사하는 이론이다.

• 따라서 지적설계는 지적 원인에 대한 연구라기보다는 지적원인에 의해 야기된 정보의 흐름에 대한 연구이다. 결과적으로 지적설계는 창조자나 기적을 전제하지 않는다. → 지성의 본질을 생각하지 않고도 지성을 탐지한다.

• (다른 표현) 생화학자 마이클 베히 →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 수학자 마르셀 슈첸베르거 → 기능적 복잡성, 윌리엄 템스키 → 특정된 복잡성(Complex Specified Information)

● 과학과 지적설계

• 지적설계를 완전히 과학적 이론으로 만들어서, 철학자들의 설계논증이나 전통적으로 ‘자연신학’으로 불렸던 것과 구분시켜주는 것은, 지적인 원인의 경험적 탐지가능성이다.

• 지적설계는 자연신학보다 더욱 조심성 있으며 동시에 더욱 강력하다. 지적설계는 자연 세계의 관찰 가능한 특징으로부터 그 특징들을 생기게 한 지성을 추론한다. → 과학은 이제 설계를 엄격하게 증명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 만약 지적인 원인이 완전한 과학적 위상을 갖도록 다시 허용된다면 과학은 어떻게 될까? → 우선, 그것은 인도되지 않은 자연적 원인의 점진적인 계승을 통하여 생명을 설명하려는 진화론자들의 입증되지 않은 그럴듯한 이야기들을 멈추게 할 것이다. 지적설계는 신체기관이 지적인 원인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줌으로써 특정한 과학적 설명을 배제시킨다. 이것은 소극적이기는 하지만 과학에서의 한가지 공헌이다.

• 그렇더라도 어떤 물체가 설계되었는지 아닌지에 대답하는 것으로 지적설계가 끝나지 않는다. → 다른 질문은 **어떻게** 그 물체가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이다.

● 역설계공학(Reverse Engineering)

• 예를 들어 스트라디바리우스의 바이올린 제작기술과 같이 잃어버린 기술의 문제는 역설계공학의 문제이다.

• 과학에 대한 지적설계의 적극적인 공헌은 설계된 물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밝혀내는 역설계공학이다.

• 역설계공학 : 어떤 자연적인 물체가 설계되었다는 결론에 도달하면, 설계이론가는 그 다음 그것이 어떻게 생성되었는지를 연구한다. 그러나 그것들이 어떻게 생성되었는지에 대한 증거는 보통 불충분하므로(적어도 자연적인 물체에서는), 설계이론가는 대신 어떻게 하면 이 물체들을 만들 수 있는지를 연구하게 된다. 이것이 역설계공학이다.

• 요약하면, 지적설계는 경험적으로 설계를 탐지하고, 그 다음 설계로 탐지된 대상물을 역설계공학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적설계가 과학적 연구를 질식시킬 것이라는 걱정은 정당한 근거가 없다.

4.5 유신론적 진화론은 아니다(Not Theistic Evolution)

● 창조 - 진화 논쟁에서의 지적 설계

• 논리적으로 지적설계는 완전히 불연속적인 창조에서부터 광범위한 진화에까지 모든 것과 양립가능하다.

• 지적설계에서 주된 질문은 유기체들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아니라, 유기체들이 명백히 경험적으로 탐지 가능한 지적 원인의 표시를 보이는가 하는 것이다. 원리상 진화 과정도 특별 창조와 마찬가지로 그런 ‘지성의 표시’를 보일 수 있다.

• 과학적 내용으로 들어가면 유신론적 진화론은 생명의 기원과 발달을 인도되지 않은 자연적 과정으로만 다루는 무신론적 진화론과 전혀 다르지 않다.

• 현재의 신학적 조류는, 그 활동을 명백하게 탐지할 수 있는 설계자 하나님보다, 면밀한 과학적 조사에 의해서는 접근할 수 없는 진화적인 하나님을 선호한다.

• 지적설계와 유신론적 진화론

•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타고난 지성이 하나님에 대한 믿을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있도록 물질세계를 만드셨는지 아닌지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 (답)우리의 타고난 지성을 사용해서 정말로 물질세계에서 결정적인 설계의 증거를 찾을 수 있는지를 보면 된다.

• 실제로 물질세계는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에 대해 아무 말이 없다. 다른 한편 그 무엇도 물질세계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독립적으로 증거 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지적설계와 유신론적 진화는 우리의 타고난 지성으로 우주의 설계에 접근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다른 입장을 견지한다. → 설계이론가는 접근할 수 있다고 말하고 유신론적 진화론자들은 아니라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신론적 진화론자들은 지적설계를 무시하는 가운데 철학적, 신학적 고찰에 호소하는 경향이 있다.

• 만약 유신론적 진화론이 지적설계로부터 아무런 위안을 찾을 수 없다면, 다윈주의 체제에서도 위안을 찾을 수 없다. 다윈주의 체제에게 유신론적 진화론의 ‘유신론’은 불필요하다. 철저한 자연주의자에게는 유신론적 진화론은 하나님이 없었다면 생명에 대한 순전히 자연주의적 설명이 되는 내용에 하나님을 불필요한 추가조항으로 포함시키는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필요 없는 형용사인 **유신론적**을 제거해야 한다.

• 다윈주의 체제에서는 유신론적 진화론을, 순수한 다윈주의자들이 받는 존경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면서도 다윈주의의 논리를 끝까지 따르기는 거부하는 우유부단한 아첨꾼으로 본다. → 내세에 대한 위로 없이 사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다. 유신론적 진화론자들은 생명이 궁극적으로 무의미하다는 사실에 직면할 용기가 없다(Theistic Evolutionists lack the stomach to face the ultimate meaninglessness of life). 순수혈통의 다윈주의자들의 눈에 이들이 비열하게 보이는 것은 바로 이 용기의 부족 때문이다.

※설계이론가들이 유신론적 진화론을 반대하는 이유는 **유신론적**이라는 단어 때문이 아니라, **진화론**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바 때문이다.

• 설계이론가들이 다윈주의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다윈주의가 경험적으로 적합한 과학이론으로서 실패했다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 설계이론가들은 다윈주의가 **그 자체로서** 실패한 과학적 연구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논증하는 데서부터 비판을 시작한다.

• 다윈주의 비판

• 다윈주의의 돌연변이-선택 메커니즘은 모든 생물의 다양성을 설명할 수 있다는 총체적인 주장이다. 그러나 증거는 전혀 이 주장을 지지하지 않는다. 존재하는 증거는 고정된 경계 내에서의 제한된 변화 또는 전형적으로 소진화(microevolution)라 불리는 것을 지지한다.

• 대진화는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돌연변이-선택 메커니즘으로는 적절하게 설명할 수 없다.

- 돌연변이-선택 메커니즘의 제한성 = 다루기 힘든 것으로 증명된 분야 : 생명의 기원, 유전 암호의 기원, 다세포생물의 기원, 성의 기원, 화석기록에서 전이형태의 부재, 캄브리아기에 발생한 생물학적 폭발, 복잡한 유기체의 발달, 환원 불가능한 분자기계의 발달 ← 심각한 문제의 일부일 뿐
- 설계이론가들의 질문 : “왜 다윈주의는 과학적 이론으로서 그렇게 부적절하면서도 학계의 전적인 지원을 계속 받는 것인가?”
- 우리는 경쟁하는 세계관과 양립 불가능한 형이상학적 체제들을 다루고 있다. 창조-진화 논쟁에서 우리는 자연주의적인 형이상학을 다루고 있다. 이 형이상학은 매우 널리 퍼져있고 강력해서 다른 대안적인 관점을 무시할 뿐 아니라, 그 자신이 비판받는 것조차도 허락하지 않는다.
- 설계이론가들이 다윈주의를 비판하는 주된 대상은 바로 이 형이상학이며, 이제 그것으로 논의를 전환하겠다.

4.6 정의의 중요성(The Importance of Definition)

• 용어의 정의

※ 창조 vs. 진화

- **창조** 또는 **진화**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당신은 창조를 믿습니까? 또는 당신은 진화를 믿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주 달라질 수 있다.
- 다윈주의 체제가 자체의 정치적, 문화적, 지적인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창조**와 **진화**라는 용어를 모호하게 다의적으로 사용하는 오류를 끊임없이 범하고 있다는 것이 설계이론가들의 주장이다.
- 이제부터 우리는 창조-진화 논쟁의 핵심에 집중할 것이다. 이제 이 논쟁은 생물이 단순히 인도되지 않은 자연적인 과정의 산물인지(**자연주의적 진화**) 또는 생물이 그것을 창조할 때 분명한 지성의 흔적을 남긴 지적인 원인 - 주로 설계자로 불림 - 의 활동을 보이는지(**지적설계**)로 끝날 것이다. → 그러므로 창조-진화 논쟁에서 해결해야 할 핵심 질문은 이 관점들 중에서 어느 것이 맞느냐 하는 것이다.

※ 과학

- 설계이론가들은 자연주의적 진화와 지적설계 중에 어느 것이 맞는가 라는 질문을 적합한 질문으로 생각하지만, 다윈주의 체제에 따르면, 자연주의적인 진화는 ‘과학적인’ 질문을 다루지만, 지적설계는 ‘종교적인’ 질문을 다룬다고 한다. 다윈주의 체제는 지적설계를 과학 밖으로 배제시켰다.
- 1993년의 갤럽 여론조사에 의하면 미국인의 거의 50%가 하나님이 특별하게 인류를 창조하셨다고 믿는 엄격한 입장의 창조론자이고, 40%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든 진화를 인도하셨다고 믿고 있으며, 나머지 10%만이 순수한 다윈주의자이다. 그러나 학계를 지배하는 사람은 이 10%이다.
- 우리 문화 안에서 유일하게 보편적으로 유효한 지식의 형태는 과학이다. 과학은 우리에게 기술을 주었다. 다윈주의 체제는 생명이 어떻게 탄생해서 발달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자연주의적인 진화만이 적합한 과학적 대답을 줄 수 있도록 과학을 정의한다.

• 순환논리(논점 회피)

- (1) 자연주의적인 진화론자들은 그것이 경험적인 증거에 기초한 과학적인 논증의 결론이라고 주장한다.
- (2) 그 경험적인 증거는 약하며, 그 결론은 일단 과학이 정의상 인도되지 않은 자연적인 과정에 제한되면 엄격한 논리적인 연역의 결과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 지배 패러다임의 전환

- 방법론적 자연주의 : 과학이 오직 인도되지 않은 자연적인 과정들에만 제한되어야 한다는 관점. 과학이라는 게임이 어떻게 작동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규칙을 정하는 이상, 지적설계는 성공할 기회가 없다. → 만약 방법론적 자연주의를 받아들인다면 자연주의적인 진화가 유일한 게임일 것이다.
- 과학적 패러다임이 이동하기 위해서는 이동해갈 새로운 패러다임이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만 한다. 지배 패러다임을 거부하려면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진보된 패러다임이 있어야만 한다.
- 자연주의적인 진화는 지배 패러다임이다. 그러나 자연주의적인 진화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 논리적으로 유일한 대안은 지적설계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적설계는 과학의 일부가 아니라는 말을 듣는다.
- 이 막다른 골목을 빠져나가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 바로 방법론적 자연주의를 버리는 것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방법론적 자연주의와 형이상학적 자연주의라는 두 가지 모습을 하고 있는 자연주의의 지배력을 깨뜨리는 것이다.

4.7 새로운 세대의 학자들(A New Generation of Scholars)

● 자연주의

- 자연주의는 우리 시대의 지적인 병리 현상이다. 그것은 지성의 활동을 인위적으로 제한하고 초월자에 대한 연구를 막는다. 자연주의의 근본적인 교의는 인도되지 않은 자연적 원인들만으로도 모든 설계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자연주의를 논박하는 유일한 길은 지적인 원인이 경험적으로 탐지 가능함을 보이는 것이다. → 요약하면, 만약 우리가 자연주의가 틀렸다는 것을 보이려면, 우리는 세상에서 설계를 증명하는 관측 가능한 특징들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

● 치유방법

- 자연주의는 질병이고 지적설계는 치유방법이다. 지적설계는 자연주의를 근절시키는 두 갈래의 접근이다.
(1)한 갈래는, 지적설계는 자연주의에 대해 과학적이고도 철학적인 비평을 제공한다.
(2)지적설계의 다른 한 갈래는 적극적인 과학적 연구 프로그램이다.
- 지적설계는 현재 어디에 서 있는가? 필립 존슨, 찰스 텍스틴, 월터 브래들리, 마이클 텐턴의 연구를 통하여 자연주의에 대한 과학적, 철학적 비평이 훌륭하게 이루어져 있다.

● 자연주의의 몰락

- 사실상 모든 학문과 노력은 현재 자연주의의 덮개아래 있다.
- 다윈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며, 인도되지 않은 자연적 과정이 모든 일을 했다는 창조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었다. 그것이 끝날 때는 그 기초 위에 세워졌던 모든 체계도 끝날 것이다.
- 그러나 그 자리에 무엇이 세워질 것인가? 그리고 누가 그것을 세울 것인가? 지적설계는 새로운 세대의 유신론적 학자들에게는 황금 같은 기회이다.
- 말콤 머거리지(Malcolm Muggeridge) “나는 미래에는 진화론이, 특별히 진화론이 응용된 분야가, 역사 교과서에서 가장 유명한 우스갯소리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후손들은 그렇게 빈약하고 의심스러운 가정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쉽게 받아들여진 것에 놀랄 것이다.”→ 여기서의 후손은 오늘날 우리 세대이다. **참조**

아브라함의 무덤



막벨라 굴 위의 모스크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무덤

이 석관은 모스크의 지하에 있다. 석관 자체는 비교적 현대의 것이지만 아브라함의 뼈들이 이 안에 매장된 것으로 믿어진다.

우리 앞에 있는 것이 막벨라/Machpelah 굴 위에 지은 모스크 지하실에 있는 아브라함 자신의 석관(무덤)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이 지하실에는 사라와 이삭과 야곱, 레아를 위한 유사한 구조물이 있다.

용기 자체는 그렇지 않을지 몰라도 실제 매장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보인다. 기독교, 유대교, 무슬림의 모든 학자들이, 이들 석관에 몇몇 족장들이 실제로 지금 매장되어 있다고 인정한다.

이 사진을 찍을 때에는 지하실 자체에는 아랍인들이 눈에 띠지만, 유대인 군인들이 이 모스크를 지키고 있었다. 유대인과 아랍인은 상당한 경외심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는데, 그들 모두가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조상으로 알고 있다. 물론 아랍인들은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의 계통을 더 강조한다. 그들은 이스마엘의 후손이다.

오늘날 막벨라굴은 중세의 건물로 덮여있다. 지하실에 있는 이 석관들은 아브라함 시대보다 훨씬 이후의 구조물이다.

레아의 석관

레아는 족장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아내들 중의 하나였다. 막벨라 굴 위에 있는 모스크와 마찬가지로, 석관 자체는 족장의 시대보다 훨씬 후기의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했듯이, 무슬림과 유대인 및 기독교인 학자들 모두, 아브라함과 족장 가족 일부의 유골이 실제로 이곳에 매장되어 있다고 동의한다. 그러한 신념은 전적으로 역사에 근거한 것이며, 레아의 유골이 실제로 이 저장소 안에 있다고 믿을 수 있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

이 지하실의 모든 석관은 특정가족구성원의 안식처로 적절하게 지정되어 있다.

그러한 증거가 매우 인상적인 반면, 그와는 대조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생각해 보면 흥미롭다. 우리는 그분의 무덤을 방문하여 그 몸의 유골을 찾을 수 없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되셨지만, 제3일에 다시 일어나셨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 그분 아버지의 오른편으로 올라가셨으므로, 그분의 무덤은 비어있다.



레아의 무덤, 역시 막벨라의 지하에 있다.

야곱의 아내 레아의 뼈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석관을 지적하다. 유대인과 아랍인들 모두 이 지역의 굴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

라헬의 무덤 밖에서



이것은 라헬의 무덤으로 전해 내려온다. (그 주장을 받쳐줄 만한 고고학적 증거는 없다.) 유대 사람들은 이곳에 와서 라헬에 대해 기도하고 이야기한다.

이것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가에 있는 소위 말하는 라헬의 무덤이다. 라헬은 야곱의 아들 요셉의 어머니였다. 그가 첫 번째로 선택했고 가장 사랑했던 아내에게서 첫째로 태어난 요셉은 야곱의 눈에 특별했으며, 그에게 특별한 옷을 주었다. (창 37:3)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이러한 제공은 첫 번째 부인의 첫 태생에게 허용했던 함무라비 법의 특별한 법령과 다소 유사하다.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다: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은 베노니라 불렀으나 그 아버지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으매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창 35:18-20)

이 장소에 대한 확실성이 막벨라 굴에 있는 족장들의 무덤만큼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흥미로운 곳이며, 건물 자체는 훨씬 후기의 것이지만 라헬이 이 근처에 묻혀있을 가능성이 크다. 정통 유대인들은 매우 자주 이곳에 와서, 집회소의 연설에서 “우리의 어머니 라헬”이라고 부른다.

라헬의 무덤 안에서



유대인 학자 Shabtaz Herman이 라헬을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고 기리며 연설을 하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그녀는 요셉과 베냐민 후손만의 어머니이다.)

왼쪽 사진은 유대인 학자 Shabtaz Herman이 “우리의 어머니 라헬”의 덕을 찬양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또 한 명의 유대인 지지자가 소위 말하는 라헬의 무덤 앞에 앉아서 야훼(여호와)에게 기도하고 있다.

연설을 하고 있는 신사는 유대인 성전의 재건을 위한 준비에 필요한 제의(祭衣)와 기타 물건들을 준비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는 그룹의 지도자이다. 그들은 그러한 사건이 매우 빨리 일어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우리는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점토 신들을 흠쳤다는 것을 알고 있다. 라반이 그들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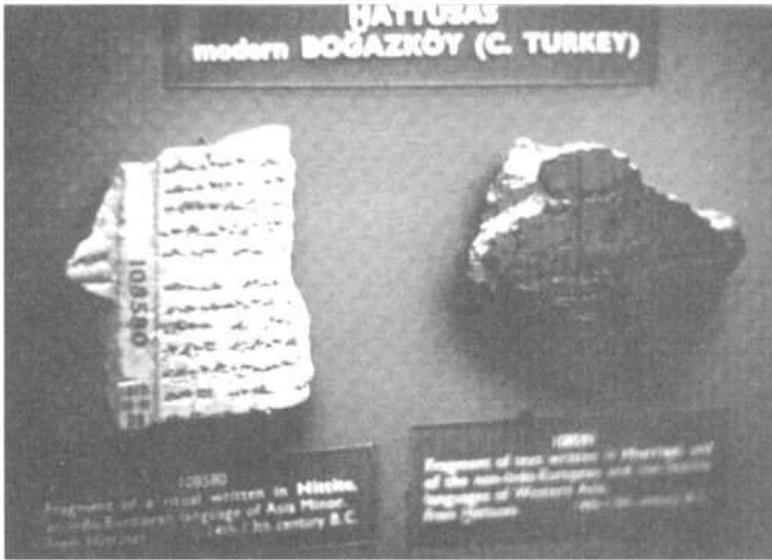
뒤쫓아 왔을 때, 야곱은 누구에게서라도 라반의 신들이 발견되면 죽음으로 그 벌을 받게 하겠다고 말했다. 고고학적으로 점토 신들을 흠치는 것은 중대한 범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라헬은 그때에 죽지 않았다: 만약 그랬다면 이것이 그녀의 전통의 무덤일 수 없다.

라헬은 그녀의 아버지가 그들을 쫓아왔을 때 자기가 흠친 신들을 낙타의 안장 밑에 숨기고 그 위에 걸터 앉아 아버지의 화를 피했었다. (창 31:34-35)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약대 안장 아래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얻지 못하매 라헬이 그 아비에게 이르되 마침 경수가 나므로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얻지 못한지라』 후에, 야곱은 자기 일행 중에 점토 신들을 모두 세켄에 묻으라고 명했다: 『너희 중의 이방 신상을 버리고 ...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창세기 35:2-3) 베델은 “하나님의 집”을 뜻한다. 그 장소와 관련해서는 우상숭배가 있을 수 없다! 이 성경 기록에 있어서 역사적 배경과 영적인 교훈은 둘 다 중요하다.

히타이트 문서

아브라함의 시대 이전부터,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처하였”(창 10:18)으며, 히타이트 족속의 일부가 아나톨리아 북쪽으로 퍼져갔다. 그들은 지금의 터키 지역에 대 히타이트 제국을 수립했다.

이 점토관들은 히타이트 제국의 수도였던 고대 핫투사에서 나온 것이다. 현재의 이름은 Boghazkoy로서 터키 중부에 있다. 거기서, 연대가 대략 BC 16세기의 것으로 보이는 중요한 문서가 발견되었는데, 히타이트 설형문자로 쓰여 있다. 발견된 문서에는 길가메쉬 서판, 여러 가지 신화와 역사적 원전, 법전, 및 평화 조약 등이 들어있다.



Boghazkoy에서 나온 점토판

현재의 Boghazkoy는 고대의 핫투사/Hattusas로서 히타이트의 수도였다. 이들 점토판은 비평가들이 주장하는 것보다 더 일찍부터 히타이트족이 활동했음을 보여준다. 창세기 23장은 아브라함이 히타이트족과 거래하는 것을 보여준다.

히타이트 법전

George Mendenhall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모세5경에 들어있는 계약서는 하나의 출처에서 나왔을 뿐 아니라, 그 출처는 BC 2000년 중반의 것이다. 이것은 위대한 사람 모세가 대략 BC 1500년경에 모세5경을 기록한 것이 사실임을 극적으로 지적해 준다.

우리는 출애굽의 시기를 대략 BC 1447년으로 받아들이며, 모세는 그 후 40년간의 광야 여정 동안에 법전을 썼을 것으로 본다. 성경이 말하는 바는 이러하며, 그것은 고고학의 연구에서 발견된 시기의 배경과 일치한다.

우리 앞에, 고대 히타이트의 중심이었던 Boghazkoy (옛날 핫투사)에서 나온 히타이트 법전이 있다. 그것은, 모세5경에 나와있는 “진보된” 법전을 모세가 편집했을 리 없다는 비평적인 논쟁에 대해 효과적으로 답해주었다. 히타이트 문서, 특히 이 법전은, 모세가 모세5경을 썼다는 것에 반대했던 고등 비평 문서가설을 분명히 거부하고 있다. **참조**

이 점토판들은 히타이트족들이 비교적 족장들의 시대에 가깝다는 중요한 점을 설명해준다. 그것들은 또한, 모세의 기록에 나오는 법적인 계약서가 히타이트족이 사용한 법적 형태와 같은 양상을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George Mendenhall 교수는 히타이트 계약서에서 중요한 점을 발견했다. 기본적으로 그는, 문서가설의 고등 비평에서 요구되듯이, 모세가 기록한 계약서는 여러 가닥의 출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의 출처에서 나온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 히타이트 법전은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 가장 오래된 것의 하나이다. 그들의 법전은 히타이트족이 정말로 아브라함의 시대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줄 뿐 아니라, 특히, 모세가 일상생활을 다룬 부분에 있어서 모세의 법전과 흥미롭게 비교된다.

그랜드 캐년 석회암은

고요하고 평온한 바다에서 퇴적되었는가?

(WERE GRAND CANYON LIMESTONES

DEPOSITED BY CALM AND PLACID SEAS?)



석회질 이토 퇴적물? (Lime Mud Deposits?)

오늘날 열대성 대양의 천해 석회질 이토(lime mud)는 1000년에 1피트 두께의 속도로 축적된다. 이 이토는 바다 생물을 함유하고 있는 탄산염의 기계적 붕괴에 의해 형성된다. 진화론자들은 오늘날의 이토를 보면, 옛날에 석회질 이암('micritic limestone(탄산염이토 석회암)')이 어떻게 해서 그랜드 캐년에 축적되었는지를 잘 알 수 있다고 믿는다. 심지어 일부 창조론자들도 석회질 이토로부터의 증거가 너무나 설득력이 있어서 그랜드 캐년 석회암이 오랜 시기를 두고 느리게 퇴적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덴 원덜리(Dan Wonderly)**는 주장하기를, 캐년 지층이 퇴적되는데 수백만 년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그랜드 캐년의 레드월(Redwall) 석회암의 조직과 현대의 석회질 이토를 비교해 보면 된다고 한다.

원덜리(Wonderly)는 젊은 지구 창조론자들이 매우 고의적인 방식으로, 느린 퇴적을 증명하는 이러한 자료를 무시하거나 간과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여기엔 커다란 차이점이 있다. 오늘날의 '천해' 석회질 이토는 해양생물 골격의 분해나 마모로부터 비롯된 아라고나이트(aragonite) 광물(대부분 60-95%의 아라고나이트와 0-10%의 방해석 함유)의 '실트 크기의' (대략 20미크론 직경) 결정이 주를 이룬다.

그랜드 캐년에는 고대 석회질 이암('탄산염이토 석회암')이 풍부하고, 미세한 결정 기질 내에 '모래 크기'와 더 큰 골격(껍질) 입자를 가진 방해석 광물(거의 100% 방해석 또는 돌로마이트)의 '점토 크기의' (4미크론 미만 직경) 결정이 주를 이룬다.

지질학자들은 현대 석회질 이토와 많은 고대 석회암 사이의 조직적, 광물학적, 그리고 화학적 차이를 강조한다.

본질적으로 방해석으로 구성되어 있는 탄산염이토 석회암은 그것들의 선구물질로 오랫동안 간주되었던 오늘날의 석회질 이토를 주로 이루고 있는 아라고나이트와는 꽤 다른 조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한,

현대 탄산염 퇴적물은 고대 탄산염암과 화학적, 광물학적으로 급격한 대조를 이룬다. 심지어 입자 형태도 현대와 고대 석회질 이토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있다.

게다가, 오늘날의 석회질 이토 퇴적물의 (결정) 입자 크기 분포와 (결정) 입자 형태 특성도 암석화된 퇴적암과 매우 다르다.

재결정 작용의 일부 과정이 석회암을 구성하는 현대의 조립질 조직의 아라고나이트 이토에서 세립질 조직의 방해석 이토로의 변형을 초래할 수 있었을까? 이것은 많은 의의가 제기된 질문이다. 재결정 작용 과정은, 큰 결정으로부터 작은 결정으로가 아니라, 작은 결정으로부터 큰 결정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떻게 그러한 과정이 현재 석회암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한 세립질 이토를 형성할 수 있었겠는가? 고대 석회암의 방해석 미결정(‘탄산염이토’) 연니(ooze)에 대한 초기 연구자들은 그것이 해양 생물 골격의 재결정 작용이나 혹은 심지어 광범위한 마모작용으로부터가 아니라 해수의 직접적인 침전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주장했다. 고대의 석회질 이토를 형성했을 것으로 여겨지는 이러한 과정은 현대 대양에서의 느린 지질작용과는 매우 다르다. 현대 석회질 이토와 세립질 석회암의 구성성분과 조직이 더 철저하게 조사되었으므로, ‘석회질 이토 문제’는 최근 몇 년간 더 명백해졌다.

현재, 과학적 증거는 고대의 세립질 석회암이 오늘날의 열대 해양에서 서서히 퇴적되고 있는 이토와 닮은 석회질 이토로부터 형성되었다는 것을 필요로 한다고 추정하는 것은 부적절할 것이다. 진화론자들은 그러한 가정을 할지도 모르나 그 사실이 그것을 정당화하진 않는다. 페티잔(F.J. Pettijohn)의 말로 하자면, “탄산염 이토의 기원은 결코 명백하지 않다.”

암초 화석?(Fossil Reefs?)

성경을 믿는 지질학자들이 직면하는 중요한 문제는 증거 없이 주장되는 석회암 ‘암초(reef)’의 존재이다. 대홍수 이론의 비평가들은 엄청나게 많은 화석을 함유한 석회암이 고대 바다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서히 축적된, 유기적으로 구성된 ‘암초’라고 말한다.

일부 비평가들은 셀 수 없이 많은 세대의 유기체가 화학적으로 서로의 위에 교결할 때 거대한 파도에 저항적인 구조를 구성하는데 수천 년이 걸렸기 때문에, 대홍수로는 그러한 구조를 퇴적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만일 그랜드 캐년의 석회암이 고요한 바다에서 서서히 축적되었다면, 석회질 이토와 함께 묻힌 크고, 유기적으로 결합한 구조(‘암초’)를 가질 것으로 예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랜드 캐년의 석회암 내에 크고, 유기적으로 결합된 구조가 발생할까? 이것들이 제자리에서, 서서히 축적된 해양저를 나타내는 것임이 증명될 수 있을까?

맥키(McKee)와 구트쉴(Gutschick)이 그랜드 캐년 석회암에 관해 가장 광범위한 연구를 했다. 그들은 “산호초(coral reef)를 레드월(Redwall) 석회암과 구별할 수 없음”을 인정한다.

그들은 간석지 환경에서 서서히 형성되었을 지도 모르는 박층으로 된(laminated) 조류(algae) 구조(스트로마톨라이트)에 관해서, “스트로마톨라이트를 형성하고 있는 하부의 전반적인 부족이나 결여는 일반적으로 간조 위의 장소를 잘 나타내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말한다. 댄 윈덜리(Dan Wonderly)의 레드월(Redwall) 석회암 조류 구조(algal structure)에 관한 신중한 의견은 대홍수에 반대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그는 일부 조류 구조가 정말로 해양저의 제 자리를 나타낸다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이 의견을 사용했다.

맥키(McKee)와 구트쉴(Gutschick)의 주의 깊은 연구에 따르면, 박층의 조류 구조는 전형적으로 동심 구조(온콜라이트, oncolite--동심원상의 엽리가 발달한 석회질 퇴적구조로서 작고 형태가 다양)를 보여주고, 구름(rolling)에 의해 운반된 조류 덩어리로 가장 잘 해석된다고 한다. 이들은 레드월(Redwall) 석회암이 제자리 해양저 퇴적물을 나타낸다고 생각하나, 그러한 예를 경험적 증거로 증명하진 않았다.



빠른 퇴적(Rapid Depos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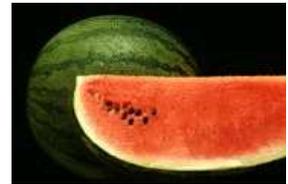
화석의 빠른 퇴적과 매몰 증거는 레드월(Redwall) 석회암에서 발견된다. 그랜드 캐년 바로 북쪽에 있는 노틸로이드(Nautiloid) 캐년의 콜로라도 강을 따라 나타나는 레드월(Redwall) 석회암은 노틸로이드(nautiloid-때때로 2피트 길이가 넘는 곧은 꺾질을 가지고 있는 ‘오징어 같은’ 해양 생물)라는 대형 화석을 함유하고 있다. 노틸로이드 캐년 내의 수많은 노틸로이드의 가늘고 긴 꺾질은 ‘세립질의’ 석회질 이토가 축적되었을 때 물이 흘렀던 방향을 지시하는 어떤 우세한 방향성을 띤다.

그랜드 캐년의 모든 석회암이 세립질인 것은 아니다. 일부는 조립의 부서진 화석 파편을 함유하고 있는데, 그것은 강한 흐름에 의해 분급된 것처럼 보인다. 레드월(Redwall) 석회암은 해백합(crinoid-구멍에 살았던 해양 생물)의 몸체나 몸체에 부착되어 있는 머리로부터 나온 조립질의 원형 디스크(columnals)를 함유하고 있다. 명백하게, 물의 흐름은 세립질의 퇴적물을 멀리 보내고, 해백합 쇄설물의 ‘뒤범벅(hash)’을 남겨놓았다. 가끔, 해백합의 머리가 조립질의 원형 디스크에 묻힌 채 발견된다. 때때로 이것들은 강한 물살을 암시하는 경사진 층(사층리)의 퇴적암 내에서 나타난다. 오늘날의 대양에 있는 현대 해백합의 머리는 이 유기체가 죽으면 빠르게 분해 되기 때문에, 해백합의 머리 화석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빠른 매몰이 필요하다고 결론짓는다.

석회질 퇴적물의 물에 의한 운반의 증거는, 많은 석회암의 세립질 기질 내에 파묻힌 채 발견되는 석영 모래 입자를 보면 알 수 있다. 이 석영 모래 입자는 그랜드 캐년의 케이밥(Kaibab) 석회암 내에 흔하다. 그것들은 심지어 레드월(Redwall) 석회암 내에서도 나타난다. **석영 모래 입자는 해수로부터 침전될 수 없기 때문에, 그것들은 다른 장소로부터 운반되었음에 틀림없다.** 모래 입자를 움직일 만큼 충분히 빠른 물의 흐름이라면 석회질 이토도 또한 움직일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석영 모래 입자는 케이밥(Kaibab) 석회암이 단순히 고요하고 온화한 바다에서 탄산염이토의 느리고 순조로운 퇴적이 아니라, 흐르는 물에 의해 운반된 퇴적물이 축적되었음을 주장한다. **참조**

창조단상 (21) 과일은 언제 먹을까?

박종환 (경북대 교수, 화학, jpark@kyungpook.ac.kr)



과일은 언제 먹을까?

요즘 수박이 제 철을 만난 것 같은데 과일은 언제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

결론은 가장 쌀 때 먹는 것이 가장 좋다. 물론 전제할 것은 자연산일 때이다, 다시 말하면 자연산으로 가장 흔할 때가 가장 가격이 쌀 때이고(경상도 사투리로는 철을 때^^) 그때 먹는 과일이 몸에 가장 유익하기도 하다.

예를 들어 요즘 흔한 수박을 보관했다가 한겨울에 먹으면 가격이 비싸진다. 그러면 비싼 수박 사 먹는 사람이 품 잡고 자랑이야 할만 하겠지만 몸에 유익한 것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요즘 같이 더운 날 물통에 띄워 뒀다가 시원하게 동네사람들과 나누어 먹는 수박이야말로 일사병 방지에 좋고, 이뇨작용으로 노폐물을 시원하게 배출해서 몸을 가볍게 하는 등 유익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처럼 모든 과일은 그 지역에서 나서 가장 흔할 때(쌀 때) 먹는 것이 가장 유익하다. 봄에는 상큼한 산나물, 여름에는 수박, 참외, 딸기, 포도, 가을에는 감, 사과, 겨울에는 밤, 호두 등. 철 따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웃과 나누면 정신건강에도 좋고....

바나나를 국내 남해안 일부 지역에서 재배하기도 하는데 서울에 보내면 1주일도 되지 않아 모두 상해 버리고 마는데, 필리핀이나 동남아에서 들여온 바나나는 어찌 그리 싱싱할 수 있는지? 설익은 것을 따서 보내지 않았으면 방부제등 약을 듬뿍 쳤을 것 같고... 우리나라 사람이 필리핀 등지에 가서 풍토병(주로 배탈)이 나면 그 곳 의사들의 처방이 바나나를 싹껏 먹으면 낫는다고 하는데 이 말을 믿고 먹은 사람은 다 낫는다고 한다. 바로 바나나는 그 풍토에 가장 적합한 식품임을 방증 하는 것이다. 물론 그 곳 사람들은 바나나 자체를 식량으로 하고도 있고....(우리는 바나나로 끼니를 때우기는 힘들다.)

대구에도 있지만 대도시에는 어디나 화훼단지 가 있을 것이다. 장미나 국화를 대량으로 전시해 놓고 파는 그런 곳. 그런 곳에 가본 적이 있는가? 꽃향이 진동하는가? 거의 그렇지 않다. 담장 밑에 피어 있는 장미향만큼 향기가 난다면 그 꽃가게에 있는 사람은 하루도 못 견디고 질식해 죽는다. 꽃향기 때문에, 그런데 거뜬히 매일매일 장사할 수 있는 것은 그 꽃들이 거의 대부분 비닐하우스 등에서 인위적으로 재배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꽃들은 거의 향이 미미하다. 시장에서 시금치 사먹어 보라. 냉상과 온상 재배의 차이가 얼마나 확연하게 맛과 향이 다른가를.....

과일 하나 먹을 때도 언젠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따라 먹었으면 한다. 비싼 것 먹는다고 으스스대지 말고.... (사죽) 가장 희귀한 것이 가장 귀한 것인 줄 알지만 가장 흔한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공기, 물, 사랑....) **참조**

본 전자소식지를 계속해서 받아 보기 원하시면, 저희 창조과학회 대구지부 홈페이지(creation21.org)를 방문하셔서 **회원가입(무료)**하시고, 가입하실 때 반드시 **E-mail 주소를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요청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홈페이지에서 이메일 부분을 누르시고, 요청사항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달마다 더욱 좋아지는 소식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